

22052331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16 May 2005 (morning)
Lundi 16 mai 2005 (matin)
Lunes 16 de mayo de 2005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구 분	특별전형, 독자전형, 정원외전형	일 반 전 형
원 서 교 부	2003. 12. 10(수) ~ 2004. 1. 8(목)	2003. 12. 10(수) ~ 2004. 1. 15(목)
원서접수	교내접수	2004. 1. 5(월) ~ 2004. 1. 8(목)
	우편접수	2004. 1. 2(금) ~ 2004. 1. 8(목) (단, 마감당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합격자 발표	2004. 1. 12(월)	2004. 1. 19(월)

※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 홈페이지(www.yes.ac.kr) 및 ARS(060-700-2111)를 참조 (단, 발표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본 대학은 2·3년제 과정임. (★는 3년제 학과임.) ※ ◎표시된 계열·학과는 2004학년도에 신설된 것임.

모집 계열 및 학과	입학 정원	정원내 모집인원			모집 계열 및 학과	입학 정원	정원내 모집인원		
		일반	특별	독자			일반	특별	독자
컴퓨터·멀티미디어계열	100	29	29(10)	0	이벤트연출과◎	50	8	8	2
컴퓨터·통신계열	100	24	34(10)	4	피부보건계열◎	90	27	24	3
식품과학계열◎	90	27	19	8	간호과★	160	128	12	4
도시환경조경과	45	10	15(10)	2	임상병리과★	40	32	0	4
전자상거래과	45	10	15	2	의료정보과	80	27	19	2
건설정보과◎	45	15	8	0	전통약재개발과◎	40	17	5	8
애완동물자원과◎	60	14	20	2	관광계열	180	72	27	9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180	38	35(7)	35	e-비즈니스계열	100	32	10	1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계열	90	36	26(8)	4	유아교육과★	64	26	15	4
음악과	40	13	0	8	주택부동산행정과	45	8	7	2
실내건축디자인과	60	30	20(5)	3	세무회계과	45	24	3	0
보석감정디자인과◎	50	16	16	8	경찰경호과	60	20	24	4
스포츠건강관리과◎	50	17	5	5	사회복지과	60	30	5	1
연예매니지먼트과◎	50	18	8	4	광고창작과◎	45	8	7	2
옥외광고디자인과◎	50	10	16	10	아동컴퓨터보육과◎	50	17	17	6

- 입학안내 : 042)580-6111~3
 ■ 인터넷 주소 : www.yes.ac.kr
 인터넷 접수 : 2003. 12. 10(수) ~ 2004. 1. 15(목)
 ①www.uway.com ②www.applybank.com ③www.apply114.com ④www.passok.co.kr
 ■ 출장 접수처 : SAY 백화점, 국민은행 은행동지점



본문 B

고속철, 궁금하죠

가족석 예약필수...식당·침대차 없어 천안~대전 구간 터널에선 진동·소음

❶ 차량=열차 1편성은 기관차 2량(양쪽 1량씩)과 특실 4량(2~5호차)을 포함해 20개의 차량으로 이뤄진다. 총길이는 388m. 차량은 방탄유리로 돼 있다. 객차 양쪽 4개의 작은 창은 비상시에 비치된 망치로 깨 수 있다.

❷ 속도=최대 운행속도는 330km. 시속 300km 도달까지는 365초가 걸린다. 20km를 달려야 도달한다. 이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3.3km를 더 나아간다. 자연스런 제동에 8km 거리가 필요하다.

❸ 최장 터널·다리=신설 선로의 가장 긴 터널은 황학터널(영동~김천) 9975m. 긴 다리는 풍세교(천안~오송) 6850m.

❹ 승무원=여객전무 1명과 여승무원 3명이다. 고속철 전체 여승무원은 13대 1의 경쟁을 뚫은 351명.



고속철을 타면 여승무원 3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명/이종근기자 root2@hani.co.kr

❺ 좌석=전체 좌석은 935석. 일반실은 4열, 특실은 3열 좌석(127석)이다. 일반실 좌석은 고정식, 특실은 접이식·회전식이다. 일반실은 객실 중앙을 향해 마주보도록 좌석이 배치돼 있다. 가운데 여덟 좌석은 가족석으로, 탁자를 두고 마주보게 돼 있다. 가족석은 따로 예약. 장애인용 좌석 두곳, 화장실·휠체어보관소가 한곳 있다.

❻ 간식·음료·서비스=기존 열차처럼 이동 판매대를 운영한다. 1편성당 3대의 스낵 자판기, 10대의 음료 자판기가 차량 사이 통로에 있다. 특실에는 승무원이 배치돼 신문·음료·이어폰 등을 항공기 식으로 서비스한다. 잠자는 승객을 위한 깨우미 서비스도 있다. 특실에 4대, 일반실에 2대씩의 비디오 모니터가 있다.

❼ 알아둘 점=전 차량 흡연 금지. 차량 간 통로에서도 금연이다. 식당차·침대차는 없다. 객실 문은 손잡이를 돌리면 자동으로 열린다. 전원 콘센트는 화장실에 있다(객실엔 없음).

❽ 불편한 점=일반실 좌석은 좁고 고정식이어서 답답한 느낌이다. 고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체가 작게 제작됐기 때문이다. 차량 뒤쪽을 보고 앉게 되면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천안~대전 일부 구간 터널 통과 때는 심한 진동·소음으로 불편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차량과 터널 사이 공간의 압축된 공기가 스며들어 고막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병학 기자

본문 C

1

2003 년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시련이 교차한 한 해였다. ‘원더풀 데이즈’를 비롯해 극장용 창작애니메이션이 세 편이나 개봉됐지만 관객몰이에서는 쓴 잔을 맛봤다. 국산 극화만화 시장은 이렇다 할 대형 히트작이 나오지 않은 반면 인터넷에서 출발한 에세이풍의 만화는 출판계 종합 베스트셀러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2

올해 개봉한 창작애니메이션은 ‘오세암’ ‘원더풀 데이즈’ ‘엘리시움’ 등 모두 세 편. 그러나 관객 동원은 1 백억여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원더풀 데이즈’가 화려한 시각 효과에도 불구하고 30 만명에 턱걸이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실사영화와 경쟁할 탄탄한 이야기 구조 없이는 관객의 눈높이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이다. 그나마 ‘오세암’은 재개봉을 요구하는 운동이 인터넷에서 펼쳐져 우리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객의 사랑을 확인했다. 수입 애니메이션 가운데는 미국의 ‘니모를 찾아서’가 1 백 20 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최고 인기를 누렸다.

3

국산 애니메이션의 창작기반인 TV 시장도 어두웠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전년보다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을 줄인데다 방송시간대도 시청률이 낮은 오후로 옮기는 일이 많아져 애니메이션업계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법을 개정해 전체 방송시간 대비 국산창작물 방송시간을 규정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사실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는 창작이 아니고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는 형편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하청방식의 애니메이션 수출은 2001 년까지 1 억달러를 웃돌다가 지난해 8 천 8 백여만달러, 올해 7 천 7 백여만달러(추정치)로 급감했다. 다행히도 창작물의 수출은 2001 년 4 백여만달러에서 지난해 2 천 4 백여만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2 천 7 백여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해외시장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기존의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만화 쪽에서도 두드러졌다. 연초 프랑스 앙굴렘에서 열린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한국특별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후 국내 만화출판사들은 미국의 샌디에고 코미콘,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일본산 ‘망가’가 아닌 한국산 ‘만화’ 알리기에 나섰다. 두 행사에서 거둔 수출계약은 약 3 백만달러로 지난해 70 만 달러에 비하면 많이 늘었다.

5

잡지 연재 후 단행본 발간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만화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물량의 일본 작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산 창작물은 큰 히트작을 뽑기 힘들었다. 창간 9 년째인 ‘영점프’가 문을 닫아 만화잡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격월간 순정만화 잡지 ‘오후’는 창간호부터 3 채나 찍어내는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 문화를 보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증명해 보였다.

뒤늦게 만화출판에 뛰어든 일반 출판사들은 청장년층을 겨냥한 복간 만화와 어린이 대상 학습만화로 만화독자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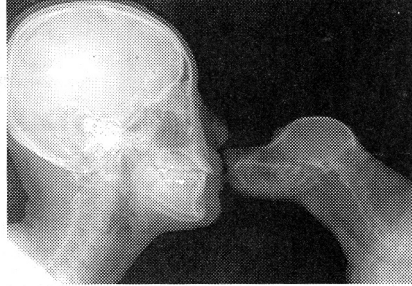
6

인터넷에서 연재를 시작한 신인만화가 심승현의 ‘파페포포 메모리즈’와 속편격인 ‘파페포포 투게더’는 도합 1 백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파페포포’의 성공이후로 만화의 그림칸을 허물고 그림과 문장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일상을 소재로 내밀한 감성을 털어놓는 새로운 유형의 만화가 인터넷에서 발굴돼 앞다퉈 출간됐다. 정헌재의 ‘포엠툰’과 ‘완구콩’ 강성남의 ‘쫄그만 이야기’ 같은 작품들은 아예 ‘에세이툰’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정철연의 ‘마린 블루스’는 각종 캐릭터 상품으로도 적잖은 수확을 거뒀다. 한편 지난 15 일에 열린 2003 대한민국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상 시상식에서는 만화 ‘마린 블루스’ 애니메이션 ‘그리스 로마 신화’ 캐릭터 ‘뿌까’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본문 D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귀여운 강아지와 뽀뽀

먼저 구충제 먹여 개회충 ‘조심’

최근 일본은 강아지 로봇을 만들어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선물했다. 부시 대통령은 강아지에게 영어로 “앉아, 일어서”라고 말했지만 강아지 로봇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머쓱해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강아지 로봇이 일본어로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개는 인류와 가장 오랫동안 동고동락해 오면서 충실한 파수꾼, 목축의 보조자, 사냥의 동반자로 그 구실을 묵묵히 해 왔다. 또 주인이 쏟는 애정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때론 그 이상으로 주인에게 보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개에 대한 사랑은 예외가 아니어서 아파트가 없었던 시절에는 마당에 강아지 한두 마리 키우지 않는 집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변하면서 강아지를 집 안에서 키우는 집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사람과 함께 같이 자고, 먹고, 뒹구는 개는 그저 단순한 애완용이라기보다 가족의 한 구성원이 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아지와 신체적 접촉도 더욱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질환

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 개도 그들만이 잘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개회충이다. 이들은 이미 감염된 어미의 태반을 통해 새끼의 창자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서부터 집에서만 키웠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감염이 심할 경우 강아지는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사람 역시 강아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사람한테는 주로 뽀뽀를 통해 입을 통해 전염되고, 심하면 장, 간, 신장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개회충 외에도 특히 어린 강아지들은 모기에 의한 심장사상충, 구충, 편충 등 다양한 기생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일정에 따라 구충제를 먹이고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이는 강아지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 가는 이때 우리의 애견문화도 그에 걸맞은 변화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조재현 대한방사선의학회 간사·
아주대의료원 방사선과 교수 choj@ajou.ac.kr
사진 전여름(연세대의 학생)씨 제공